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글로벌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식량 위기 주요 동향[1)]

■ '식량 위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로, 미국·캐나다의 기록적 가뭄과 에너지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복합 악재가 겹치며 국제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 또한 비료·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2023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FFPI)는 곡물, 육류 등 55개 농식품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데 2022년 5월 지수가 157.4까지 상승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에 98.1이었던 이 지수는 2021년 공급망 위기가 더해지며 125.7로 올랐는데, 2022년 글로벌 복합 위기까지 겹쳐 또다시 대폭 상승함.

■ 또한, 폭염과 가뭄이 불러온 미국 농가의 위기는 글로벌 식량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 조짐이며, 당장 미국 옥수수 선물가격은 올 1월 1부셸당 5.87달러에서 2022년 6월 16일 7.88달러로 34% 상승함.

-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밀 생산지인 캔자스주는 폭염과 가뭄 때문에 2022년 밀 생산량이 예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밀가루, 빵, 파스타 등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임.

---

1)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 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올해 세계 식량 수출 제한 57건...곡물 45% ↑ 우리 소비자에 '직격탄'"(서울신문, 2022.6.20.), "러, 우크라 곡물터미널 공격…"식량 수출 방해목적""(이데일리, 2022.6.23.), "유엔 총장 "식량부족으로 전세계 '재앙' 닥칠 수도""(MBC, 2022.6.24.), "식량위기 남 얘기?…'한국인 밥상'도 텅 빌 수 있다"(문화일보, 2022.6.24.), "서방 당국자들 "우크라 전쟁발 세계 식량위기 2년 이상 지속""(연합뉴스, 2022.6.24.), "美, 식량수확 줄고 소 폐사… 佛선 전기가격 일주일새 64% 폭등"(동아일보, 2022.6.25.), "G7 정상회의 오늘 개막…우크라이나 전쟁·식량위기 등 논의"(KBS, 2022.6.26.), "각국 식량안보 빗장에 인플레 증폭…전세계 기아 약 3억명 육박"(news1, 2022.6.26.), "[기고] 식량 위기와 국가의 책임"(세계일보, 2022.6.27.), "'식량위기' 아우성인데…농식품 폐기량, 쌀 소비량 웃돈다"(농민신문, 2022.6.29.),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최악의 식량 위기 '대두'"(투데이코리아, 2022.6.29.), "나토 사무총장 "식량위기, 대러 제재 원인 아냐…푸틴의 전쟁 때문""(NEWSIS, 2022.6.30.), "한국 식량자급률 20%도 안돼… 10년 안에 식량위기 겪을수도"(동아일보, 2022.6.30.).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전 세계 식량 바구니로 불리는 양국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각국 정부마저 '식량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식량 위기가 가시화됨.

- 인도 외에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등 각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문제와 경기 침체, 기후변화 등으로 곡물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기아 문제에 직면함.

-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2022년 5월 13일, 밀 수출에 제동을 걸었고, 밀 외에도 2022년 6월 1일 설탕 수출을 제한, 세계 팜유의 60%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말레이시아는 이웃 국가인 싱가포르에 닭고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 전 세계 밀 생산량 8위를 차지한 아르헨티나는 라니냐 현상으로 3년 연속 가뭄에 시달리면서 올해 수확량이 전년 대비 70만 헥타르가 축소함.

- 미셸 루타 세계은행 거시경제·무역투자 수석 경제전문가는 "수출 규제는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전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몇 달 안에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식량위기 우려가 고조되며, 세계 주요국이 2022년 단행한 식량·비료 수출 제한 조치만 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식량인 소맥·옥수수·팜유·대두유의 국내 자급률이 0~1%에 불과해 소비자들과 식품업계가 '식량 공급망 교란'에 직격탄임.

| 주요 식량 품목별 국산 사용량 |

(단위: t)

	수입산 사용량	국산 사용량	국산 비중
소맥	238만 6164	2940	0.1%
옥수수	216만 4768	2529	0.1%
팜유	24만 6498	-	0.0%
대두유	17만 6280	2043	1.1%

주: 2022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식량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들어 세계 각국이 내린 식량·비료 수출 제한 조치는 34개국 57건으로 이 가운데 80%인 45건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뤄졌으며, 주요 식량 품목별로 보면 소맥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대두유(10건), 팜유(7건), 옥수수(6건) 순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식량 안보·공급망 데이터를 구축해 위험 품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체 공급선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 개발, 해외 유통 터미널 지분 매입, 합작 투자 등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

■ 2021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식량안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13개국 중 32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 수준이며, 일본이 매년 10위권을 웃도는 반면, 우리나라 순위는 2017년 24위에서 2019년 29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이고, 축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 인구 증가나 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적정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전략이 없는 데다 식량안보를 전담하는 주무 부처조차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또한, 밀 자급률이 0.7%에 불과한 한국은 연간 소비하는 350만 t의 밀을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해 왔지만 2021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미국의 곡물 생산량이 40%가량 감소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며 식탁 물가가 폭등함.

■ 또한, 우리나라는 곡물 해외의존도가 특히 높아 위기감이 높은 반면, 가정 1인당 농식품 폐기량만 연간 71㎏으로 쌀 소비량(57㎏)을 크게 웃도는 모순을 빚고 있어 식품 손실 감소정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일본 사례[2]등을 참고해 식량위기 완화와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쌀·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45.8%, 사료용까지 포함한 전체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한 만큼 다수확 벼 품종 재배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각에선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서둘러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중.

- 주요 곡물인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농지 보전 등으로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곡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해외 조달기지 구축과 원료 수입 다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변동성이 큰 국제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 꾸준히 시행돼야 함.

2) 일본은 2001년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촉진법'에 이어 '2019년 식품 손실 삭감 추진법'을제정해 식품 손실 감소를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대,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기업·소비자의역할을 규정하고, ▲식품 손실 감소를 위한 기본 방침 마련, ▲식품 손실 감소의 달(10월)지정, ▲편의점 과잉 발주 예방, ▲식품 손실 저감 방법 소비자 교육, ▲잔반 없는 회식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한편, 2022년 6월 23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서방 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앞으로 2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서방 각국은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유럽의 빵 바구니'란 별명을 지닌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 및 수출이 상당 기간 정상화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

- 이는 러시아가 부설한 기뢰로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가 봉쇄된데다 도로, 교량이 파괴되고 농업 기반 시설이 폭격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기 때문이며, 당장 우크라이나의 2022년 곡물 수확량은 전쟁 여파로 작년도의 60%에 머물 것으로 서방 당국자들은 전망함.

■ 서방은 러시아·우크라이나·터키·유엔 4자 회담을 열어 흑해 바닷길을 여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안이 도출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가 식량 부족 심화로 재앙과 같은 심각한 사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 이어 비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작물 수확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 A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2022년 6월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식량 안보 관련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코로나 유행, 불평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식량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 "2022년 대규모의 굶주림 사태가 다수 불거질 실제 위험이 있다"라며 "2022년 전 세계의 약 4천 9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2022년 6월 30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식량 위기를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식량 위기는 나토의 제재에 따른 것이 아닌 푸틴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 때문이며, 이 같은 위기를 끝내는 최선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7.0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